

서울대 신입생들을 위한 가이드!

### 1. 마이스누 가입

마이스누 들어가서 로그인 아래에 보시면 아이디 신청하는 란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하라는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이스누는 서울대 학생 전용 사이트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정보 열람, 등록, 수업 및 성적 확인, 장학금 신청 및 선발 현황 확인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 2. 학생증 신청

아마 문자가 올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보내는 우리은행 위비뱅크를 깔고 뭐 어찌구저찌구하는 문자인데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학생증 가지고 건물 출입하니까 꼭 신청하세요.

학생증 받는 곳은 자하연과 자하연 식당 근처에 우리은행이라고 써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신양인문학술정보관(인문대 4동)인데 여기에 가면 우리은행 있어요.

### 3. 에브리타임 설치 후 서울대 에타 가입

마이스누 메일로 가입해야 하니까 마이스누부터 가입하세요. 서울대 에브리타임은 서울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서 대화도 하고, 정보도 얻고, 시간표도 짜고, 나중에 의류(후드, 뚝바) 공구도 하니까 꼭 설치하세요.

### 4. 시간표 짜기

듣고 싶은 강의를 들어보세요! 시간표 짜는 앱(에브리타임, snutt 등)을 설치하면 됩니다. 비어 있는 시간을 잘 찾아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약간 테트리스하는 느낌이라 은근 재밌어요 ㅎㅎ

강의계획서를 보면 수업 방식(팀플 여부, 시험 방식, 녹화 강의인지 실시간 강의인지 등등)과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알 수 있으니까 강의계획서를 꼭 찾아보세요!

수업을 보면 학년이 쓰여 있는데 권장이라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1학년이 4학년 과목 들어도 돼요. 물론 따라가기는 힘들겠죠? 선수 과목이나 수강반 제한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공 필수(전필)와 필수 교양(필교)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전공 선택(전선), 나머지 자리에 교양을 넣습니다! 특히 대학영어(대영)와 대학 글쓰기(대글)은 1학년 때 듣지 않으면 골치 아파지므로 빨리 듣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과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잘 찾아보고 시간표를 짜면 될 것 같네요.

학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수하는 학점의 수입입니다. 한 학기는 보통 15주 인데요, 1학점은 주당 1시간의 수업을 들었을 때 인정받는 학점의 수를 의미합니다. 2학점은 주당 2시간의 수업이겠지요? 물론 모든 수업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초 영어라는 수업의 경우 주당 1시간 넘게 듣지만 인정은 1학점만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수업에서 받는 평점입니다. 마이스누에서는 평점으로 표기하지만 보통 말할 때는 학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대는 4.3점 만점으로 a가 4점, b가 3점, c가 2점, d가 1점, f는 0점이며 여기에 (+)가 붙으면 0.3점 증가, (-)가 붙으면 0.3점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a+를 받으면 4.3점, b-를 받으면 2.7점인 거죠.

들을 학점도 자신이 직접 정할 수 있어요. 보통 15~18학점을 들습니다. 최대가 18학점이라서 (신입생 세미나, 기초 수학, 기초 물리학 등 특수한 과목을 듣거나 자유전공학부, 의예과 등 특수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내로 듣게 됩니다. 보통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졸업할 때까지 전공 60학점(이것도 과마다 다를 수 있어요.)을 들어야 해서 한 학기에 전공 6~9학점 정도를 추천합니다. 과에 따라 1학년 때는 들을 전공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https://liberaledu.snu.ac.kr/>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링크입니다. 여기서 본인에 해당하는 이수규정대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시간표를 짤 때는 로드, 학점 잘 주는 지의 여부, 수업에서 얻어갈 것이 많은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로드는 “짐, 부담”이라는 뜻의 영어 load에서 나온 말인데요, 말 그대로 그 수업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의 정도입니다. 과제, 시험, 팀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업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겠죠?

또한 에타나 다른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강의평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업의 교수님이 학점을 잘 주시는지(꿀강인지), 그 수업이 얻어갈 것이 많은지(명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꿀강인 동시에 명강이라면 너무 좋지만 그런 수업은 많이 없죠. 잘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교양 수업은 한국고대사의 쟁점(김지희 교수님)입니다. 꿀강인 동시에 명강이었어요. 이외에 다른 수업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수업을 신청했어도 나중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드랍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수강한 것이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합시다.

다만 재수강은 다릅니다. 재수강은 수업을 신청하여 듣고 학점까지 나온 상태에서 그 수업을 다시 듣는 거예요. C+ 이하의 학점부터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재수강의 경우 최대학점은 A0로 제한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수업을 들을 때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경우 재수강을 노려 일부로 C+ 이하의 학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걸 자체 드랍, 줄여서 “자드”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수업을 잘 따라가서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 좋겠죠?

## 5. 신입생 특별 시험

문과의 경우는 영어 시험만, 이과의 경우는 영어 시험, 수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영어 시험은 텡스입니다. 이번 시험은 정기시험과 같은 텡스라고 하네요. 상대평가여서 상위 50%가 327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험에서 1~297점을 받으면 이후에 필수 교양에서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하고, 298~386점은 대학영어1, 387~452점은 대학영어2, 453점은 고급영어를 수강하게 됩니다. 면제도 있는데 이걸 단과대마다 달라서 직접 찾아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초 영어만 피하면 됩니다. 기초 영어는 듣는 시간에 비해 학점을 굉장히 적게 줘서(1학점) 들을 때 짜증날 수 있어요. 수능 1~2등급 정도면 무난하게 300점은 넘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과의 경우 수학 시험도 봐야 합니다. 그거 안 보면 따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네요.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학교를 가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일 거예요. 학교를 갈 때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보통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5511번이나 5513번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게 되는데,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3번 출구 말고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보이는데, 그걸 건너서 조금만 걸으면 버스정류장이 나와요.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의 바로 전 정류장이 6번 출구 횡단보도 건너 버스정류장이어서 남들보다 빨리 버스 탈 수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지도 앱과 서울대 캠퍼스 맵이라는 앱을 까시는 게 좋아요. 서울대 캠퍼스 맵은 건물번호로 건물을 찾을 수 있는 앱입니다. 가끔 수업이나 여러 공지사항에 ~동(예시 : 83동, 222동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서울대 캠퍼스 맵에 건물번호를 검색하면 건물과 위치가 나옵니다.

글쓰기 시험도 있는데 이건 선택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요건에 따라 글을 써서 제출하면 채점해서 온라인으로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논술이랑 비슷해요. 전 했는데 귀찮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